스포츠동아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sportsdonga.com 20판

롯데 조정훈이 말하는
포크볼의 치명적 유혹

4면

프로농구 경기 결과	10일
남 오리온스 76 : 72 LG	하나외환 64 : 54 신한은행 여

프로배구 경기 결과	10일
남 한국전력 3 : 0 우리카드	현대건설 3 : 1 GS칼텍스 여

연봉 8억~9억원·계약기간 3년…7년만에 FC서울 복귀

방랑 끝낸 박주영 앙코르 '서울의 봄'

AS모나코-아스널-셀타 비고-왓포드-알 샤밥 거쳐
친정서 마지막 재기…K리그 복귀전 빨라야 4월에
부활 전망 엇갈려…실력으로 부정적 시선 잠재워야

▲박주영이 7년 동안의 해외활동을 접고 친정팀 FC서울을 통해 K리그로 복귀한다. 박주영은 2008년 AS모나코(프랑스)를 시작으로 아스널(잉글랜드), 셀타 비고(스페인) 등 유럽리그를 거쳐 알 샤밥(사우디아라비아)에 둥지를 틀었지만 최근 수년간은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2008년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활동했던 박주영의 모습. 스포츠동아DB

'저니맨' 박주영(30)이 힘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FC서울은 10일 "박주영과 계약에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고 발표했다. 기본 연봉과 수당 등 구체적 계약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상위 레벨보다는 조금 낮은 연봉 8억~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주영은 2005년 프로에 데뷔하면서 입은 서울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다. 2008년 여름 AS모나코(프랑스)로 이적한 이후 7년만의 친정팀 복귀다.

2011년까지 AS모나코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유럽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박주영은 아스널(잉글랜드)로 옮긴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2012런던올림픽을 앞두고는 모나코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럽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 국적을 바꿨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2012~2013시즌 셀타 비고(스페인), 2013~2014시즌 왓포드(당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임대선수로도 뛰었다. 지난해 여름 아스널에서 방출돼 유럽 잔류에 실패한 뒤 10월 알 샤밥(사우디아라비아)과 8개월 단기 계약을 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도 적응에 실패했고, 결국 친정팀으로 돌아와 재기를 노리게 됐다.

박주영의 K리그 복귀전은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주영은 사우디에서 약 3개월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팀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경기 감각은 떨어진 상태다. 서울 이재하 단장은 "박주영이 당장 경기에 나서서 골을 넣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 출전하면 구단도, 선수도 손해다"며 "몸을 만들고, 감각이 올라왔을 때 (경기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용수 감독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빨라도 4월초나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영은 전반기에는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위주로 뛴다.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는 출전할 수 없다. 선수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오르면 7월에 추가로 선수등록을 하면 출전이 가능하다.

서울은 박주영의 합류로 팀 공격력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여부를 놓고선 전망이 엇갈리는 형편이다. 박주영 본인이 향후 실력으로 부정적 시선들을 잠재워야 한다.

▶박주영 해결해야 할 과제는 2면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길렌워터 37점 9리바운드…오리온스 '반격 1승'

6강 PO 2차전 76-72 LG 꺾고 적지서 1승1패
추일승 감독 '김시래·문태종 봉쇄 작전' 적중

오리온스 트로이 길렌워터(가운데)가 10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6강 플레이오프 2차전 도중 김종규(오른쪽)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오리온스는 길렌워터의 37점 활약에 힘입어 1차전 패배를 설욕했다. 창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오리온스가 트로이 길렌워터(37점·9리바운드)의 맹활약에 힘입어 4강 플레이오프(PO)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오리온스는 10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6강 PO(5전3승제) 2차전에서 LG를 76-72로 꺾고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오리온스는 또 2006년 4월 8일 삼성전부터 이어지던 PO 원정 최다연패(11게임)에서 탈출했다.

LG는 8일 홈 1차전에서 82-62로 승리했다. 역대 6강 PO에선 5전3승제 기준으로 1·2차전 승리팀이 총 13번 중 모두 4강 PO에 올랐다. 오리온스로선 2차전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것과 다름없었다. 10일 경기 전 오리온스 추일승 감독은 "선수들에게 1점차나 20점차나 똑같은 패배라고 얘기해줬다. 수비에서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스는 LG의 주요 득점 루트인 데이본 제퍼슨-문태종 또는 제퍼슨-김시래의 2대2 플레이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제퍼슨에겐 허용할 점수를 주되,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제퍼슨 수비는 국내선수 이승현에게 맡겼다.

추 감독의 작전은 적중했다. 제퍼슨은 22점·10리바운드·8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1차전에서 21점·5어시스트를 쓸어 담았던 김시래는 6점·1어시스트로 막혔다. 특히 승부의 분수령이 된 3·4쿼터에선 무득점이었다. 문태종도 3점슛 3개를 포함해 13점을 넣었지만, 3·4쿼터에선 3득점에 그쳤다. 적지에서 1승1패로 목표를 달성한 오리온스는 12일부터 홈에서 3·4차전을 이어간다.

창원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CCTV 사찰 의혹' 롯데, 인권위에 외압 행사했나?

본지 '인권위 발표 내용' 단독 입수

'롯데 야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 고발' 누락
KBO가 롯데 대신 권고 받는 '이상한' 상황으로
인권위 자문위원인 롯데그룹 고문변호사 개입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1일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 의혹'에 관한 공식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는 10일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관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을 통해 인권위 발표 내용의 골자를 단독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첫째, '롯데 야구단에 롯데 선수들의 숙소 동향을 담은 CCTV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들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관리 감독하라'는 정책 권고를 내렸다. 둘째,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더 이상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연찮은 사실은 인권위가 정책 권고를 CCTV 사건을 일으킨 롯데가 아니라 KBO와 10개 구단 전체에 내렸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10일 "원래 경찰권을 쥔 행정자치부 장관이 '롯데 야구단(혹은 최하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하도록'하는 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 권고가 어찌된 영문인지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롯데 야구단이 일으킨 사건을 시정하는 정책 권고에 원인제공자인 롯데는 빠지고, KBO가 정책 권고를 받는 '이상한' 발표가 나올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롯데가 그룹 차원의 외압을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 시키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롯데그룹 고문변호사인 S변호사가 인권위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롯데의 인맥이 인권위 조사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인권위 조사위원이 막판에 교체된 사실도 외압 여부를 두고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또 "최 전 대표이사가 롯데그룹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는 충실했는데 어떤 외압으로 사건이 축소됐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고발이 없으니 롯데 CCTV 사찰 의혹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인권위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커녕 서둘러 덮으려는 상황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